

방과 후 마을학교 89% '만족'

전북교육청, 35개 기관
63개 프로그램 위탁
학생 1464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첫 도입한 '방과 후 마을학교'가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자를 공모해 총 35개 기관을 선정, 운영해왔다.

운영기관에는 전주의 경우, (사단법인) 공연문화발전소 명태를 비롯해 동화나래, 전주아동요리연구소 요리놀이터 등 9개 기관 군산은 협동조합 스포츠재이 등 3개 기관 등이 연구·유지·관리·감독·사물놀이를 비롯, 지역 특색에 맞는 63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기에 도내에서는 총198개 학교(시 지역: 135교, 군 지역: 63교)에 1,464명(시: 703명, 군: 761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에 도교육청이 이들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만족하다고 답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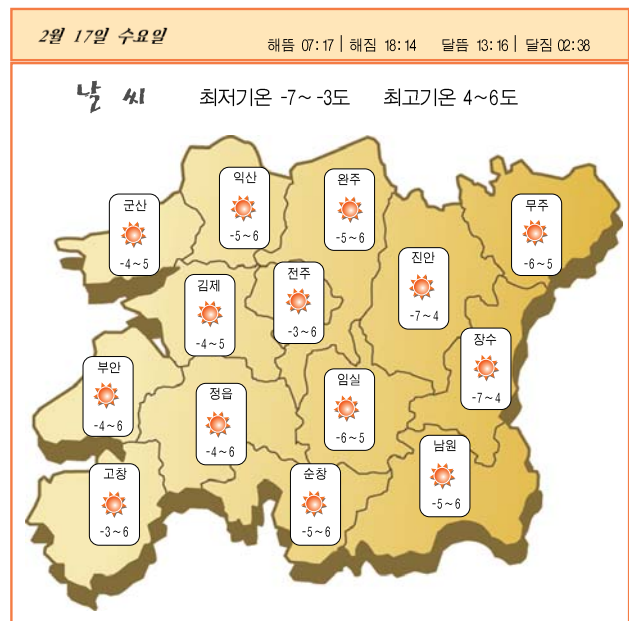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문 반입 막는 학부모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울림짜공원에서 '단원고등학교 교육가족' 소속 학부모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문이 행사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 이날 '단원고등학교 교육가족'은 성명서를 통해 존치되고 있는 교실에 대해 이행정 경기도교육청은 발판하고 있어 침해되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재참여 여부 운영 장소, 강사 선정 등에서도 90%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방과 후 마을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방과 후 마을학교 지원 예산에 도교육청 1억5,000만원과 지자체 4,200만원 등 총1억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사회 내 전문가, 학부모, 노인을 비롯해 148명이 강사로 참여해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다는 설명

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1년간 운영한 결과, 학생 등 교육공통체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오늘 연구성과물 발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반정수, 이하 연구소가 지난해 연구한 25가지 성과물을 발표하는 연차보고회를 갖는다.

연구소는 오는 17일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 유지방안 연구 ▲공립 대안 교육 특성화고 설립 운영 기초연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방안, ▲전북 자유학기제 현황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등 18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차보고회를 연다고 전북교육청이 15일 밝혔다.

연구소는 "학생자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주적 학생생활규칙 개정의 실질적 확산과 공동체 생활협약운동, 자율시간 확

보를 통한 학생동아리 활동 권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원업무 경감책 일환으로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교육지원청 정책토론회 등 12개 사업 폐지, 중3학년 교사·학생 대상 진로진학 특강 등 3개 사업 개선, 두드림학교 등 6개 사업 검토 등을 제시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 유지방안 연구에서 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배정 회차 등을 고려해 소구역제를 통한 근거리 배정 등 학군 조정이 공동체 생활협약운동, 자율시간 확

덕진구, 맞춤형 가로수 정비 추진

전주시 덕진구 생태도시과는 올해 맞춤형 도심 가로수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1차 가지치기 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정연신로, 우아로, 거북바우로, 소리로 등 4개 노선에서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280그루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로수는 조밀성장 및 수형훼손의 문제가 있다. 특히 느티나무와 플라타너스는 1년에 가지가 평균3m 이상이 자라기 때문에 현재 우선적으로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지치기를 통해 해충 발병률을 낮추고 가로수 과밀을 해결하여 건강한 가로수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나무 특색에 맞게 모양을 다듬는 수형조절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사다리가 탑재된 차량이 필요한 가지치기 정비를 위해 작업 날짜를 미리 공지해 가로변 불법주차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본격화

전통시장 상인 창업·취업지원사업 등 시행... 구직·취업 실태조사도

전주시가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경제를 키위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사업(1100여명 규모)과 함께 복지일자리사업, 시내서비스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10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10명), 전주3D 프린팅 사업관련 일자리(12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청년 구직·취업 등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수립과 사업 발굴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운영된 청년일자리 IT팀을 통해 발굴된 청년일자리

정보 토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미스매칭 해소 위한 '잡 좋은 기업' 발굴,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운영, 프리마켓 상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올해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중 청년 고용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공모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취업지원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이 사업은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촉진 사업으로,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60명씩 총 120명의 청년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 참여기업 30 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취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가칭)청년상상놀이터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가치관과 창의성에 맞는 창작·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청년들의 취업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 기반의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청년들을 이력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되는 교·전문대·기업이 연계된 5년 통합과정의 '취업보장형 교·전문대 통합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사업 공모 접수

19~23일까지

전주시가 전주형 공동체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4년도 온두레공동체 사업 공모를 접수한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인 공동체성을 키워내는 디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잠재력 있는 우수 공동체를 육성하는 이음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디딤단계는 지역을 기반으로 10명 이상의 거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 5명 이상이 참여해 추진하는 '소규모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된다. /김영재 기자

또한 시는 지난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경쟁력이 있고 지속 성장 가능한 공동체를 이음단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음단계 공동체의 경우에도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신청공동체를 대상으로 심사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시는 공모에 앞서 18일까지 총 3일간 디딤단계 111개 공동체와 이음단계 22개 공동체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한 총 133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 공동체가 공모에 참여한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공동체가 최종 확정되며, 사업비는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김영재 기자

600th
부안정명600주년

BUAN MASIL FESTIVAL
2016. 5. 6 ~ 5. 8 일
전북 부안군 일원 (주행시장: 부안읍)

'축복의 땅' 부안으로 마실도 가고, 오복도 받고!
어화세상 벗님네야 복 받으러 마실가세~